



차 례

Contents

이슈와 진단

-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02

중국 지역별 정책 동향 14

- 징진지, 인재 일체화 발전 계획 실시 15
- 산둥성, 해양 목장 건설 계획 제시 17
- 랴오닝성, 국가 자주 혁신 시험구 3년 행동 방안 시행 19
- 장쑤성, “1+3”공능구 전략 구축 22

현대중국의 이해 24

- 도시 접관과 중공 도시전략의 전환 25

충청중국포럼 소식 39

- 제21·22회 충청중국포럼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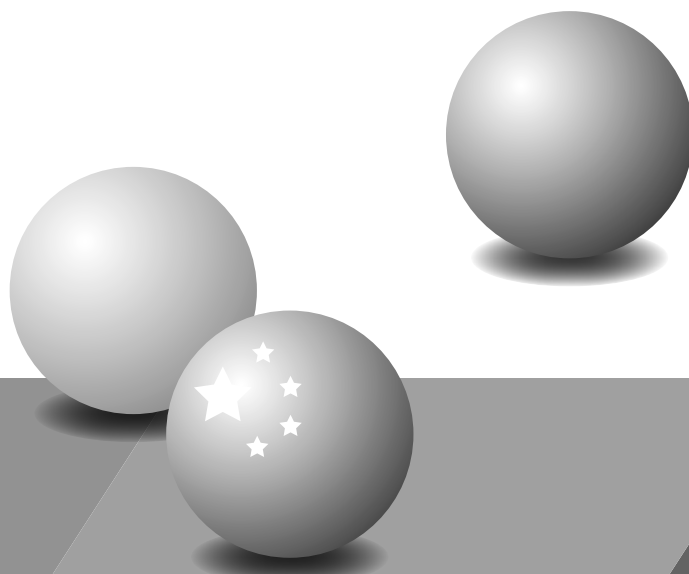
발간목록 46

이슈와 진단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필위녕·박경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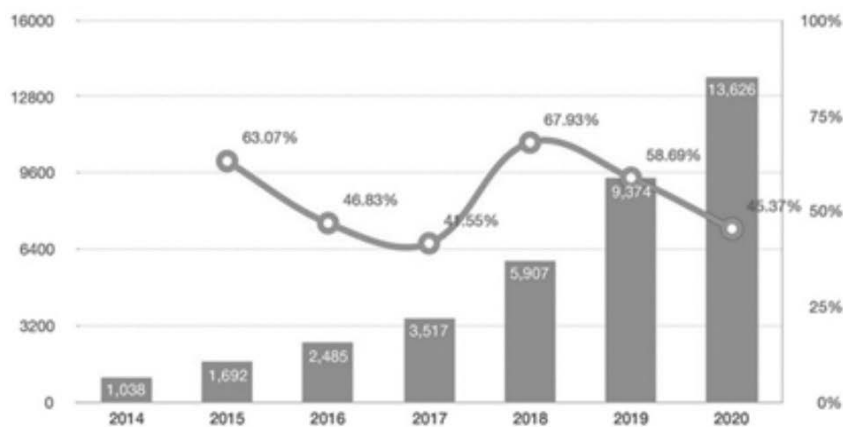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2012년 3월, 미국 정부가 “빅데이터 연구와 개발 이니셔티브(Big Data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를 발표한 후에 중국 정부도 빅데이터 산업에 관한 육성과 발전을 중시하게 되었다. 최근 중국 빅데이터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시장규모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호 이슈와 진단에서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현황, 추진 동향과 전망을 정리하고 충남도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현황

- 2016년 5월 중국 구이저우성(貴州省) 구이양시(貴陽市)에서 개최된 제2차 중국 빅데이터 산업 포럼에서 관련 전문가는 2020년까지 중국이 글로벌 데이터 중심지가 될 것이고, 2020년에는 글로벌 데이터의 20%를 차지하면서 세계 최대 데이터 시장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구이양 빅데이터 거래소(貴陽大數據交易所)는 “2016년 중국 빅데이터 거래 산업 백서(2016年中國大數據交易產業白皮書)”를 발표하였다.
“백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빅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약 2,48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46.83% 증가했다. 향후 4년 동안(2017-2020) 연평균 약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추정하고 2020년까지 빅데이터 산업 시장규모는 약 13,62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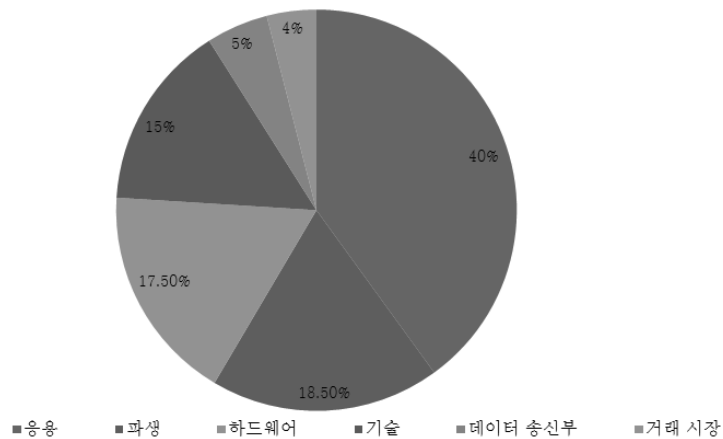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빅데이터 산업 시장규모(억 위안) 및 증가율(%)

출처: 貴陽大數據交易所

- 빅데이터 시장의 세부 분야를 살펴보면, 빅데이터 관련 제품과 응용의 지속적 보급 하에서 향후 5년 동안 응용 측면 시장이 점점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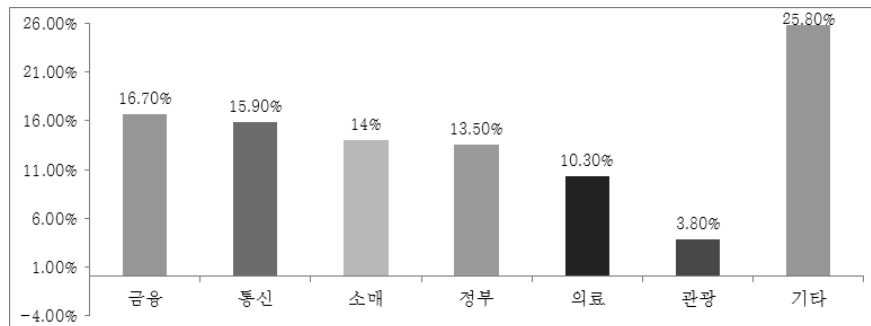
기술, 데이터 송신부와 파생 측면의 공통부문을 통한 응용 시장 규모는 약 3,187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 빅데이터 세분 시장 비중은 응용 측면(40%), 파생 측면(18.5%), 하드웨어 측면(17.5%), 기술 측면(15%), 데이터 송신부 측면(5%), 거래 시장(4%) 순이다.



<그림 2> 2020년 중국 빅데이터 세분 시장 현황

출처: 貴陽大數據交易所

- 2015년 중국 빅데이터 시장의 업종별 투자 비중은 금융(16.7%), 통신(15.9%), 소매(14%), 정부(13.5%), 의료(10.3%), 관광(3.8%) 순이었다. 6대 업종의 비중이 74.2%에 달한 반면, 기타 업종(교육, 제조, 에너지, 매체, 인터넷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25.8%에 불과하였다.



<그림 3> 2015년 중국 빅데이터 시장의 업종별 투자 비중

자료: 易觀

- 중국 빅데이터의 대표적 응용 업종은 주로 정부 공공서비스, 금융, 전자상거래, 전신, 의료, 물류, 교통을 포함한다. 이 중 전자상거래, 전신과 금융은 상대적으로 성숙된 빅데이터 응용 업종이 될 것이다.

1) 정부 공공서비스업

- 현재, 중국 중앙정부와 성(省)급정부의 주요 업무 중에서 전자 정부 시스템의 응용률은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현(縣)급 이상 정부 부서는 기존의 보편적인 정부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정부 빅데이터 응용 시장 규모는 2014년 9.06억 위안에 불과하였으나 2020년까지 574.7억 위안으로 500억 위안 선을 돌파할 전망이다.

2) 금융업

- 금융업은 빅데이터 응용 보급에 따라서 좋은 발전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금융업 빅데이터 응용시장 규모는 2014년 7.1억 위안에서 2020년 449.6억 위안으로 증가할 추세이다.

3) 전자상거래업

- 전자상거래의 빅데이터 응용 범위는 주로 B2B(기업간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다. 2014년 전자상거래의 거래규모는 이미 12.3조 위안으로 12조 선을 넘어섰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고속 발전에 따라,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산업도 빠른 성장기에 진입했다.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응용시장 규모는 2014년 6.33억 위안이었고 2020년 402.6억 위안에 달할 것이다.

4) 전신업

- 중국 전신업은 거대한 시장과 수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가 모인다. 이러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통신사의 전신 인터넷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통 운영 모델을 혁파하며,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이동 마케팅 등 첨단 데이터 서비스를 추진된다. 전신 빅데이터 응용 시장 규모는 2014년 7.5억 위안에서 2020년 471.8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

5) 의료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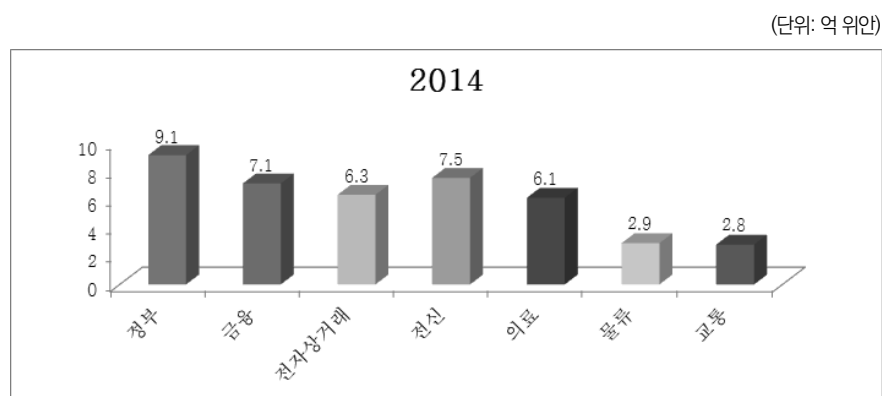
- 의료 빅데이터 응용 시장은 아직도 큰 규모를 형성하지 못하였지만 시장의 발전과 정책의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의료 빅데이터 응용 시장은 급속한 발전 시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 빅데이터 응용 시장 규모는 2014년 6.1억 위안이었고 2020년 39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6) 물류업

- 빅데이터는 신흥 기술로써 물류기업에게 새로운 발전 기회를 제공한다. 빅데이터 기술을 잘 활용한다면 물류기업의 관리와 결책, 자원 배치, 고객 관계 유치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물류 빅데이터 응용 시장 규모는 2014년 2.8억 위안에서 2020년 188.2억 위안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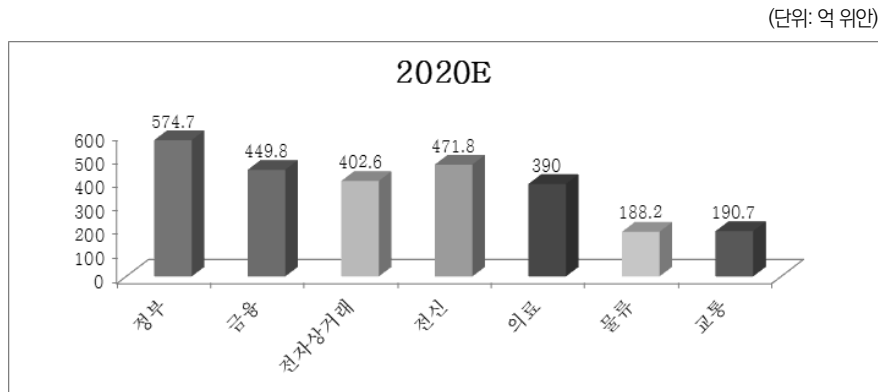
7) 교통업

- 2011년부터 스마트 교통과 빅데이터 기술이 이미 결합, 발전하였다. 스마트 교통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이 중요한 구동(驅動)력을 발휘할 것이다. 교통 빅데이터 응용 시장 규모는 2014년 2.7억 위안이었고 2020년 약 190.7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4> 중국 업종별 빅데이터 응용 시장 규모(2014)

자료: 產研智庫



<그림 5> 중국 업종별 빅데이터 응용 시장 규모(2020)

자료: 産研智庫

II.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추진 동향

1. 중앙정부 추진 동향

- 2015년에 중국중앙정부는 “인터넷+”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동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통해 현대 제조업을 결합하고, 전자상거래, 공업인터넷과 인터넷 금융의 발전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였다.
- 2015년 9월에 국무원은 “빅데이터 발전 추진을 위한 발전 강요”를 발표하였다.
“강요”의 핵심내용은 빅데이터 발전 추진을 통해서 기술·제도·혁신의 장점을 발휘하고, 행정체제개혁을 역방향으로 촉진하고, 정부의 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경제의 전형승급(轉型升級)을 추진시키는 것이다.
“강요”는 중국 최초의 빅데이터 국가 측면 행동 계획으로써 중국 빅데이터의 전면적 발전과 응용을 추진하고, 데이터 강국(強國)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 규칙을 제공했다. 빅데이터 추진을 위한 정부 빅데이터, 빅데이터 산업, 빅데이터 안전보장 등 3대 측면에서 10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표 1> 정부 빅데이터 응용의 10대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정부 데이터 자원 공유·개방	-정부 데이터 자원 공유 추진 -정부 데이터 통합 공유 교환 플랫폼 형성 -국가 정부 데이터 통합 개방 플랫폼 형성
국가 빅데이터 자원 총괄 발전	-각종 정부 정보 플랫폼과 정보 시스템 통합 -분산된 데이터 센터 자원 통합 -국가 기초 정보 자원 체계 완성 -인터넷 정보 등록·사용 강화
정부 관리 빅데이터	-거시적 통제 정책과 리스크 조기 경보의 지원 -신용 정보 공유 기제와 신용 정보 시스템 건설의 추진 -사회 관리 빅데이터 응용 체계 건설
공공서비스 빅데이터	-의료건강, 사회보장, 교육문화, 교통관광 빅데이터의 응용
공업과 신흥 산업 빅데이터	-공업, 전자상거래와 서비스업 빅데이터의 응용 -데이터 응용 신경영 방식 육성
현대 농업 빅데이터	-농촌농업 정보종합 서비스의 제공 -농업자원 요소 빅데이터의 공유 -농산품 품질 안전 정보 서비스의 제고
대중 혁신 빅데이터	-빅데이터 혁신의 응용과 서비스 -과학적 빅데이터의 발전 -지식 서비스 빅데이터의 응용
빅데이터 핵심 기술과 상품 연구·개발 및 산업화	-빅데이터 기초 연구와 빅데이터 기술 상품의 개발 -빅데이터 기술 서비스 능력의 제고
빅데이터 산업 지탱 능력 제고	-중견기업의 육성 -빅데이터 산업 공공 서비스의 건설 -중소기업 공공 서비스 빅데이터의 응용
인터넷 빅데이터 안전 보장	-인터넷과 빅데이터 안전 보장 체계의 건설 -인터넷 안전 정보 공유와 리스크 파악 시스템의 강화

자료: 國務院(關於促進大數據發展的行動綱要)

- 2016년 3월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통과한 중앙정부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13차 5개년 계획 강요(2016-2020)”에서 국가 빅데이터는 발전 전략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를 기초적 전략 자원으로 삼고, 전면적 빅데이터의 발전 행동 추진을 실행하고, 빅데이터 자원의 공유·개방과 개발응용을 추진하고, 산업의 전형승급과 사회의 관리 혁신을 조력하는 것이다.

- 2017년 1월에 중국 공업과 정보화부는 “빅데이터 산업 발전 계획(2016- 2020)”을 발표했고 2020년까지 기술 선진, 응용 번영, 보장 강화의 빅데이터 산업 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총수입은 1조 위안에 달하고 연평균 약 30%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농업부, 교통운송부, 국토자원부, 환경보호부 등 중앙부서도 각자 분야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을 제시하였다.

<표 2> 2016년 중앙정부 각 부서별 빅데이터 분야 추진 정책 현황

부서	정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전국 발전 개혁 부서 빅데이터 업무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임업국	중국 임업 빅데이터 발전에 관한 지도 의견
환경보호부	생태 환경 빅데이터 건설 총체 방안
국무원	건강 의료 빅데이터 응용 발전의 추진과 규범에 관한 지도 의견
국토자원부	국토자원 빅데이터 응용 발전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
교통운송부	교통운송 산업 데이터 자원 개방·공유 추진에 관한 실시 의견
농업부	농업 농촌 빅데이터 시범 방안

자료: 필자 정리

2. 지역별 추진 동향

- 중국 빅데이터 산업은 주로 동부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베이징, 상하이, 광둥을 비롯한 핵심지역은 정보기술산업 기반이 좋고 비교적 완비된 산업 체인을 형성하면서, 산업 규모도 크다. 또한, 우수한 정보기술 인재를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지역적 우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기초가 튼튼한 편이다.

반면, 구이저우, 충칭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은 지방정부가 추진한 산업발전 정책의 인도를 통해서 빅데이터에 관한 기업을 적극 끌어들이며 지역 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1) 징진지 지역

- 베이징 중관촌(中關村: 중국의 실리콘 벨리)의 정보산업 우세를 토대로 많은 빅데이터 기업을 육성하고,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빅데이터 산업 일체화 발전을 배경으로 “중관촌 기술개발-텐진 장비제조-(허베이) 장자커우·청더 데이터 저장”의 빅데이터 발전 모델을 형성시키고, 합리적인 분업과 협동 발전을 구축한다.



<그림 6> 중국 빅데이터 산업 분포도

자료: 貴州大數據交易所

“13차 5개년 계획(2016-2020)” 동안, 중관촌은 100명의 빅데이터 관련 최고의 인재, 100개의 창업 단체를 초빙하고, 인공 지능,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 핵심기술을 구상하고, 5개 국제 일류(一流) 연구 기관과 5개 거래평가기관을 도입하고, 30개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20개 창업 육성 플랫폼을 설립하고, 3개의 빅데이터 산업단지와 50개의 빅데이터 산업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600개 핵심기술 기업과 6000개 응용기술 능력 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빅데이터 혁신 기지(基地)를 구축한다.

2) 장삼각(長三角) 지역

- 빅데이터와 지역 스마트 도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결합하고, 다수의 빅데이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빅데이터 산업발전을 추진시킨다.

상하이시는 빅데이터 연구와 발전에 관한 3개년 행동 계획을 세우고, 난징시는 스마트 도시의 건설을 통해 도시관리와 민생복무(服務) 등 분야에서 빅데이터의 활용을 늘리고, 항저우시는 알리바바(阿裏巴巴), 화웨이(華為) 등 우수한 정보 기술 기업을 활용하여 클라우드 산업(雲產業) 체인을 건설한다. 2020년까지 항저우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2-3개의 빅데이터 기업을 육성하고, 200개의 중소형(中小型) 빅데이터 기업을 조성하여 정보기술 산업을 발전시킨다.

3) 주삼각(珠三角) 지역

- 선전 등 지역은 국가 슈퍼컴퓨터 연구소의 선정 지역으로써 전자정보산업 우세를 발휘하고, 텡쉰(騰訊), 중싱(中興) 등 중견 기업의 선도 역할을 통해서 주삼각지역의 빅데이터 중심지 역할을 수행한다.

4) 중서부 지역

- ◆ 국내외 중견 빅데이터 기업 유치를 통해서 빅데이터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

충칭시는 빅데이터 행동 강요를 발표했고, 무한시(후베이성)는 화중(華中)지역 최초의 빅데이터 거래소인 장강빅데이터 거래소(長江大數據交易所)를 설립했고, 시안시(산시성)는 향후 5년 동안 서부지역 최대의 인터넷 빅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다. 구이저우성은 빅데이터의 발전 기회를 잡고,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혁신 시험구를 선정하고, 빅데이터의 산업 체인을 구축하며,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빅데이터 응용 전시 센터, 빅데이터 거래소와 빅데이터 전략 중점 연구실을 설립하고, 구이양 첨단기술단지(貴陽高新區)를 배치하고, 델(戴爾: Dell)을 비롯한 700여개 빅데이터 기업을 유치했다.

II.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전망과 시사점

1.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전망

- 빅데이터는 중국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엔진이 되고 있다. 빅데이터의 응용 범위와 응용 수준이 경제 구조의 조정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새로운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향후 몇 년 동안, 빅데이터 기초 시설 건설이 계속 증가하고, 빅데이터 공유 속도가 가속화하고, 정부 빅데이터 응용이 점차 심화되고, 빅데이터 규칙과 관리가 날로 갖춰지고, 빅데이터와 전통 산업 간 깊이있는 융합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1) 기초 시설 건설 확대

- 기초 시설은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광대역 중국(寬帶中國)” 전략에 따라서 차세대 인터넷, 5G 통신망, 공공 무선망, 전자 정부

사이트, 사물인터넷 등 인터넷 기초 시설의 건설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빅데이터 공유 가속화

- 2015년 중국은 “빅데이터 발전 촉진 발전 행동 강요(促進大數據發展行動綱要)”를 발표했다. 2018년까지 국가 정부 데이터 통합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신용·교통·의료·보건·취업·지리·문화·교육·과학기술·자원·금융 등 민생(民生) 분야 관련 데이터를 개방·공유할 것을 계획했다.

3) 빅데이터 응용 심화

- 각급 정부기관은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빅데이터를 충분히 분석·응용하면서 정부 정책의 과학성·정확성을 제고시키고, 정부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4) 빅데이터 규칙 완성

- 지금은 개인 데이터 정보 보호 관련 규칙이 없고 빅데이터 산업의 업종 규모가 작고, 정부의 보호 능력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입법 형식을 통해서 개인 정보 보호 제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5) 빅데이터와 전통산업 간 결합

- 빅데이터 산업 발전의 성숙도에 따라서 농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전통산업은 점점 빅데이터와 정보, 첨단제조, 신에너지, 바이오 간의 깊은 융합과 혁신 응용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전통산업의 전형승급(轉型升級: 구조 조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 대충남의 시사점

- 2014년 충남도는 구이저우성과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한 후 양자 간의 각종 교류협력은 빠르게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문·학술 교류 분야뿐만 아니라 산업 협력 분야도 윈윈(雙贏: 양측 모두 이익을 얻음)할 수 있는 협작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구이저우성의 주요한 경제 발전 방향은 주로 빅데이터를 비롯한 신흥산업이기 때문에 충남도에 있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기

업·연구기관·대학이 구이저우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의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남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 기업이 구이저우성 구이양 빅데이터 단지 관련 기업과 공동 연구·개발 플랫폼을 설치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수출품목 개발과 수익창출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구이저우성 빅데이터 산업의 발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충남에 있는 빅데이터 관련 연구센터는 구이저우성에 있는 연구 기관과 공동 기술·혁신 교류를 추진한다.

셋째, 충남에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 우세를 활용하여 중국 현지에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시각화·안보 등 빅데이터 관련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개발한다.

넷째, 충남과 구이저우성에 있는 빅데이터 전문인력과 전문가를 서로 파견해서 양자의 빅데이터 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산업협력 방안을 구축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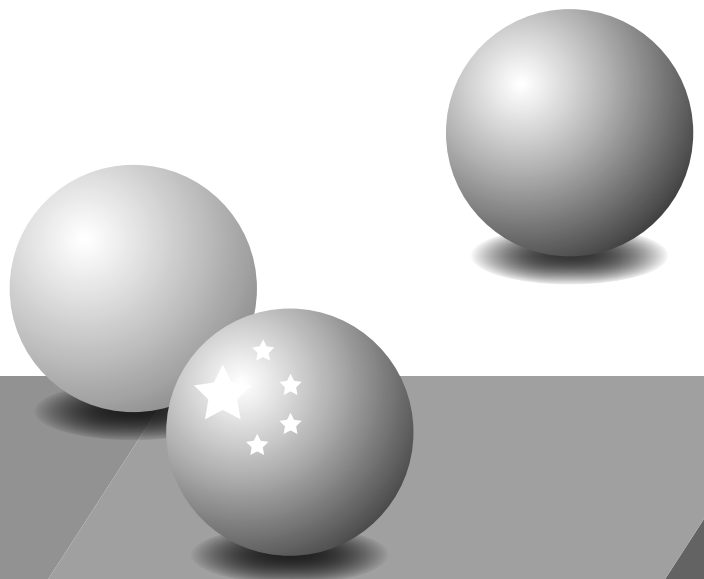
産研智庫(2016), “2016年中國大數據產業發展規模現狀及趨勢”.
貴陽大數據交易所(2016), “2016年中國大數據交易產業白皮書”.
移動信息化研究中心(2017), “2016中國大數據市場研究報告”.
中國信息通信研究院(2017), “2017年中國大數據發展調查報告”.
中國信息通信研究院(2017), “中國大數據產業分析報告”.

중국 지역별 정책동향

- ▶ 1. 징진지, 인재 일체화 발전 계획 실시
- ▶ 2. 산둥성, 해양 목장 건설 계획 제시
- ▶ 3. 랴오닝성, 국가 자주 혁신 시험구 3년 행동 방안 시행
- ▶ 4. 장쑤성, “1+3” 공능구 전략 구축

필위녕·박경철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1

징진지, 인재 일체화 발전 계획 실시

- 최근 징진지(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 지역은 공동으로 “징진지 인재 일체화 발전 계획 (2017-2030)”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중국 최초의 지역 간 인재 계획이자 최초의 국가 중대 전략을 위한 인재 전문 계획이다.

본 계획에 따라서, 2030년까지 징진지 지역의 인재 구조를 합리적으로 하고 인재 자원 시장을 규범하며 공공 서비스를 균등하게 만들고 인재 일체화 발전 모델을 갖추며 인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세계 첨단 인재 집결구를 건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징진지 일체화 관련 삽화

자료:百度圖片

● “1체 3극 6구 다성”

베이징시 관련 부서 책임자는 이 “계획”은 “징진지 협동 발전 계획 강요”와 “심화 인재 발전 체제 개혁에 관한 의견”에 근거하여 “1체(一體) 3극(三極) 6구(六區) 다성(多城)”으로 전체적인 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1체”는 지역 간 인재 일체화 공동 발전체 구축을 의미한다.
- ▶ “3극”은 전국 과학기술 혁신 센터의 건설을 둘러싸고, 베이징을 혁신형 인재 집결구로 구축하고, 징진지 혁신 인재의 발전극(發展極)을 형성시키고, 전국 첨단 제조 연구·개발 기지의 건설을 둘러싸고, 텐진을 산업 혁신 인재 집결구로 구축하고, 징진지 첨단제조 인재의 발전극을 형성시키고, 허베이성의 전형(轉型) 수요를 둘러싸고 승안(雄安) 신구의 혁신 발전 시범

역할과 스자좡(石家莊)시의 전환과 선도 역할을 발휘하고, 징진지 혁신 전환 인재의 발전극을 형성시킨다.

- ▶ “6구”는 동부 임해 지역의 산업 인재 발전 시범구, 서북부 지역의 생태 환경보호 인재 발전 시범구, 중부 지역의 임공(臨空) 경제 첨단 인재 발전 시범구, 숭안신구의 첨단 혁신 창업 인재 발전 시범구, 통저우(通州)-우칭(武清)-량팡(廊坊) 인접역의 징진지 인재 일체화 발전 종합 시범구, 남부 지역의 과학기술 성과 전환 인재 발전 시범구가 포함된다.
- ▶ “다성”은 베이징, 톈진의 인재 연동과 스자좡과 탕산 등 지역 중심도시 및 장자커우, 청더 등 지점 도시의 인재 연동을 이끌어낸다.

● 5대 임무

징진지 인재 일체화 과정 중에서 지역 인재 구조와 협동 발전 역할, 지역 인재 국제화 발전 수준과 세계급 도시군의 구축 목표, 인재 일체화 발전 기제 체제와 지역 인재 경쟁력의 제고, 인재 공공 서비스 수준과 인재 일체화 발전 수요 간에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인재 발전 신구도의 구축, 세계 첨단 인재 발전 고지(高地)의 선점, 지역 인재 발전 기제 체제의 혁신, 지역 협동 혁신 인재 공동체의 구축, 지역 인재 정책의 신우세 구축 등 5대 중점임무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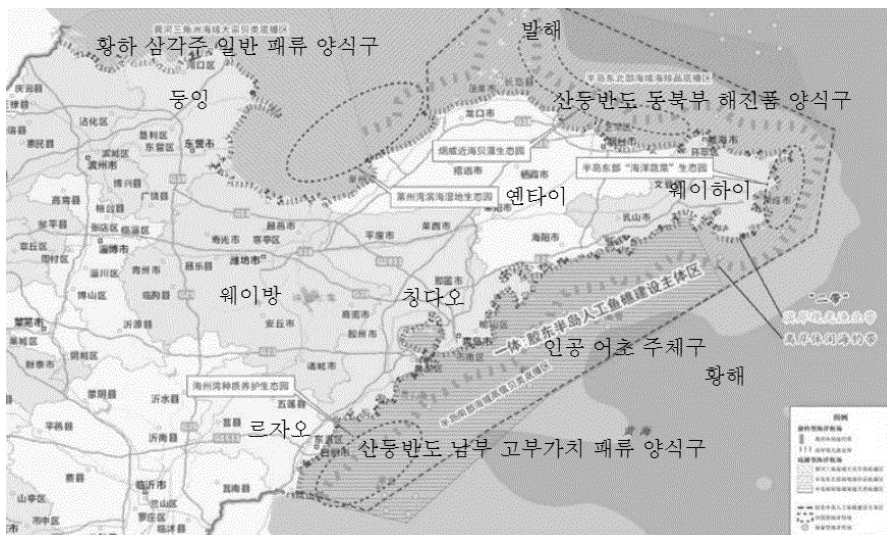
● 13대 중점 프로젝트

2030년 “세계 첨단 인재 집결구”의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시된 13대 중점 프로젝트는 주로 글로벌 첨단 인재 초빙, 징진지 인재 혁신 창업, 청년 엘리트, 고기능 인재 연합체, 숭안신구 인재 집결, 동계 올림픽 인재 발전, 임해 산업 인재 집결, 임공 경제 산업 인재 집결, 인력 자원 서비스 산업 단지 건설, 국제 인재 커뮤니티 건설, 징진지 인재 상호연계(互聯), 징진지 인재 서비스 맞춤형 육성, 징진지 인재의 온전한安居(居)정책 등의 임무가 포함된다.

2

산둥성, 해양 목장 건설 계획 제시

- 2017년 7월 27일 산둥성 정부는 “해양 목장 건설 계획(2017-202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해양 목장 건설의 공간 구조를 확정하고, 산둥성 해양 목장 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어업 산업의 전형승급(轉型升級)을 촉진한다.



<그림 2> 산둥성 해양 목장 공간 구조 계획도

출처: 山東省海洋牧場建設規劃(2017-2020年)

● 공간 구조

산업 발전 배치 측면에서 수역의 자연 생태, 어업의 산업 특징 등 요인에 근거하여 목장의 특색과 유형을 합리적으로 선정하고, 목장의 산업 구조를 최적화하며, “1체(一體), 2대(兩帶), 3구(三區), 4원(四園), 다점(多點)”의 공간 구조를 구축한다.

“1체”는 인공 어초 주체구이고, “2대”는 해안(濱岸) 관광 어업 지대(地帶)와 이안(離岸) 레저 낚시 지대이며, “3구”는 황하 삼각주(둥잉) 해역 일반 패류 양식구, 산둥반도 동북부(엔타이·웨이하이) 해역 해진(海珍)품 양식구, 산둥반도 남부(칭다오, 르자오) 고부가가치 패류 양식구이고, “4원”은 라이저우(萊州)만 해안 습지 생태원, 엔타이-웨이하이(煙威) 근해 패류와 조류(藻類) 생태원, 산둥반도 동부(룽청) “해양 채소” 생태원과 하이저우(海州)만 보호 생태원이고, “다점”은 해역의 자연 조건과 정비 유형 배치를 근거하고, 각종 정비형 해양 목장 건설을 의미한다.

● 목표

“계획”의 단기 목표는 2020년까지 해양 목장의 수산물 생산량이 452만 톤에 달하게 하는 것과 해양 목장의 수산물 생산액, 산업체인 총액이 950억, 3000억 위안으로 2016년 대비 25%, 60% 증가시키는 것이다.

장기 목표는 해양 목장의 생태 관리 능력을 갖추고, 생태 복원 범위를 확대하며, 해양 목장의 환경 품질을 뚜렷하게 개선하고, 어업 자원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다.

3

랴오닝성, 국가 자주 혁신 시험구 3년 행동 방안 시행

- 2최근 랴오닝성 정부는 “선양-다렌 국가 자주 혁신 시험구 3년 행동 방안(2017-2019)”을 발표하였다.

“방안”을 통해서 선양-다렌 국가 자주 혁신 시험구는 동북 구(老)공업기지의 첨단 장비 연구·개발과 제조 집결구, 전형승급(轉型升級) 선도구, 혁신 창업 생태구, 개방 혁신 선도구를 구축할 것이다.

- **목표**

2019년까지 선양-다렌 국가 자주 혁신 시험구의 첨단 장비 제조업 판매액이 장비 제조업의 38% 이상을 차지하고, 첨단기술 산업 생산액이 공업 총 생산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70% 이상으로 제고하고, 특허 건수가 만 명 인구당 25건 이상으로 달성하고, 연구·개발 경비의 비중이 지역 총생산의 3%를 넘어설 것이다. 또한, 대(對) 한국·일본 등 주변국과 환보하이(環渤海), 징진지 등 지역의 과학기술 시범 기지를 건설한다.

- **7대 임무**

- ▶ **장비 제조업 등 전통 공업의 전형승급**

선양시는 로봇, IC(집적 회로) 장비, 민간 항공, 디지털 의료 등 장비제조업을 발전시키고, 4개 특화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다렌시는 스마트 장비, 신소재와 친환경 에너지, 정보 보안, 바이오 의료 기술 등 4개 “2025 혁신 센터” 및 첨단 장비, 범용(通用: 군 및 수송 사업을 제외한 다른 항공 일반) 항공, 바이오 공학, 친환경 에너지 등 4개 산업 혁신 기지를 설립한다.

- ▶ **신흥산업의 육성**

선양시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 전자상거래, 바이오 의약, 문화창의, 과학 기술 혁신 등 6개 특화 산업단지와 현대 서비스업 집결구를 육성한다.

다렌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문화 창의 디자인, 역외 전자상거래 등 신흥산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

- ▶ **신형 산업 기술 혁신 체계의 구축**

선양시는 선양 로봇과 스마트 제조 혁신 연구원, 동북대학 등을 바탕으로 국가급 제조업 혁신 센터, 국가 기술 이전(동북)센터와 국가 공업 인터넷 연구 센터, 동북대학 혁신 단지 등 산학 협력 기관을 구축한다.

다롄시는 중국 과학기술연구원 기지, 해사(海事)대학 국가 과학기술단지, 신에너지 자동차 시범도시를 구축한다.

▶ 창업과 혁신의 생태 환경 조성

선양시는 첨단산업단지의 국가급 창업·창신(雙創) 기지 등을 바탕으로 “산업+창업·창신+금융+인터넷”의 정책 추세를 강화하고, 기업·대학·연구소·창업투자기구가 설립된 18개 전문화와 시장화 중창(衆創: 대중 창업) 공간을 선도한다.

다롄시는 “중창 공간+인큐베이터+가속기+산업화 기지” 4급 기업 육성 체계를 건전하고, 100개 기업을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우수 산업 중에서 선두기업(龍頭企業)을 육성한다.

▶ 과학기술과 금융의 융합 발전

선양시는 과학기술 금융 시범구를 건설하고 50개 은행·보험·기금 등을 비롯한 각종 금융기구를 도입하여 과학 기술 투자와 융자 플랫폼을 통한 기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롄시는 정책의 시범 역할을 발휘하고, 과학 기술·금융·산업의 융합을 추진하며, 과학 기술 금융 생태 환경을 최적화하고, 각종 금융 기능구를 설립하여 상장기업의 육성과 지도를 진행한다.

▶ “인재 특구” 구축

선양시는 “천인 계획”, “만인 계획” 등 인재 계획과 유럽-미국 동창회, 창신·창업 기지 등 플랫폼을 바탕으로 스마트 제조, IC 장비, 바이오 의약 등 주도산업의 혁신 인재를 대대적으로 모집한다.

다롄시는 “해외 유학생 창업주(創業周: 창업박람회)” 등 플랫폼을 위탁하여 “해창(海創: 해외 인재 창업)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내외 첨단 인재의 창신·창업 활동을 지원한다.

▶ 협동 창신 구조의 구축

선양시는 개방·창신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한중(선양) 협동 과학기술 창신 센터, 항공 부품 제조 산업 단지 등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다롄시는 IBM, 소니(Sony), 화웨이(華為), 중싱(中興) 등 국내 외 선도기업의 기술 우세를 위탁하여 주도 산업의 전형(轉型) 발전을 이끌고, 중국-이스라엘 첨단기술 산업 협력 플랫폼을 통한 기술 이전 기지를 구축한다.



<그림 3> 전국 국가 자주 혁신 시험구 분포도

자료:百度图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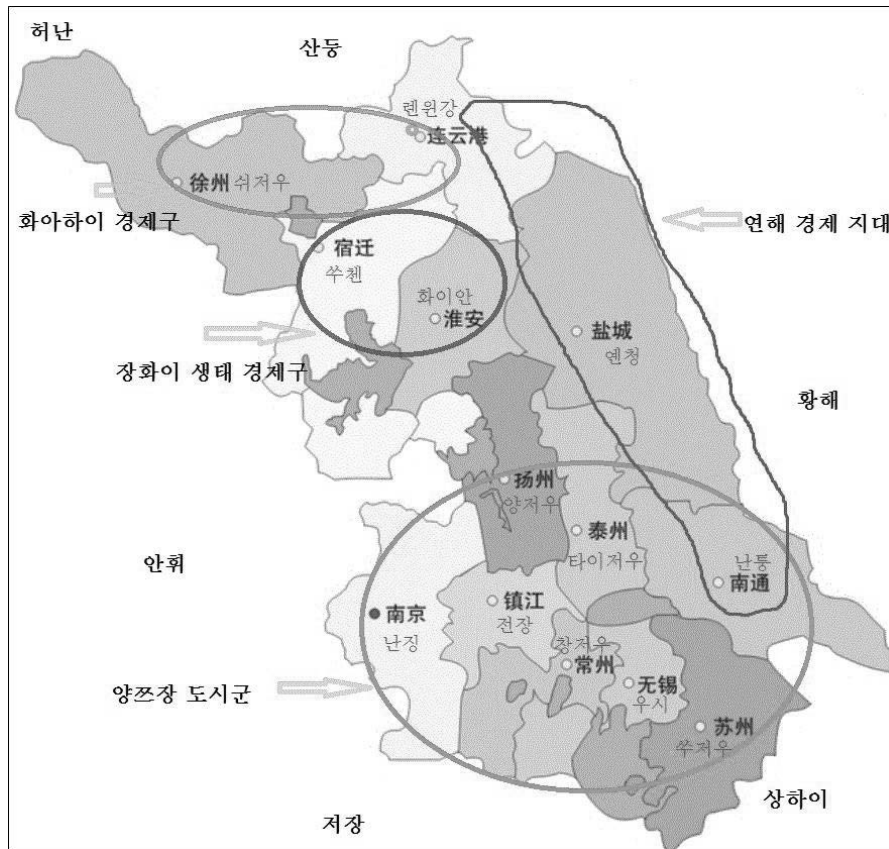
4

장쑤성, “1+3” 공능구 전략 구축

- 올해 5월에 장쑤성 정부는 “1+3” 공능구(功能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전략을 통해서 장쑤 발전 지역의 전략 조정, 발전 구조의 전략 개조, 발전 우세의 전략 재건을 실현하고, 장쑤 경제의 신동력, 발전의 신활력, 경쟁의 신우세를 부여하였다.
- 구간 구조
“1”은 양쯔강(揚子江: 장강 하류 장쑤성 구간) 도시군이고, “3”은 연해 경제 지대, 장화이(江淮) 생태 경제구와 화이하이(淮海) 경제구를 의미한다.
- 양쯔강 도시군
양쯔강 도시군은 주로 난징시(南京市), 전장시(鎮江市), 양저우시(揚州市), 타이저우시(泰州市), 난통시(南通市), 쑤저우시(蘇州市), 우시시(無錫市), 창저우시(常州市)로 구성된다. 장쑤성 경제의 엔진이자 장삼각 도시군 북측 핵심구인 양쯔강 도시군은 “1체 2측(一體兩翼)”의 공간 구조를 구축한다. “1체”는 양쯔강 유역 20여 개 현(縣)급 핵심 지역을 포함하며 장쑤성 2차·3차 산업의 주요 생산 지역, 경제발전의 주요 엔진 지역, 국내 외 경제에 주요 참여 지역이다. “2측”은 닝항(寧杭: 난징과 항저우) 생태 경제 지대의 7개 현급 지역과 장강 북부의 리샤허(裏下河) 지역이며 양쯔강 구역의 녹색 생태 환경 보호 구간이다.
- 연해 경제 지대
연해 경제 지대는 주로 난통시(南通市), 염청시(鹽城市)와 련윈강시(連雲港市)로 구성된다. 장쑤성의 잠재적 발전 지역이자 장삼각 북측 경제 중심지인 연해 경제 지대는 국가 전략의 우세를 발휘하고, 연해 고속 통로를 개통하고, 임강(臨港)경제와 해양경제를 발전시키고, 상하이시의 산업 이전을 촉진한다.
- 장화이 생태 경제구
장화이 생태 경제구는 주로 쑤첸시(宿遷市)와 화이안시(淮安市)로 구성된다. 장쑤 생태경제의 시험구이자 지속 가능한 발전 시범구인 장화이 생태 경제구는 쑤난(蘇南)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고, 생태 보호와 생태 관광 등 경제 기능을 결합하고 화이하이(淮河) 생태 경제 지대의 발전 기회를 잘 활용하고, 양쯔강 도시군과 협동 발전을 촉진시킨다.

● 화이하이 경제구

화이하이 경제구는 주로 쉬저우시(徐州市)와 련윈강시(連雲港市)로 구성된다. 화이하이 경제구의 중심 도시인 쉬저우시와 국가 동서부 협력 시험구인 련윈강시는 두 지역 간을 연동(聯動)하고, 각 지역 입지의 유리함을 이용하여 국가 “일대일로” 발전 전략 중에서 영향력을 강화한다.



<그림 4> 장쑤 “1+3” 공능구 전략 위치도

자료:百度圖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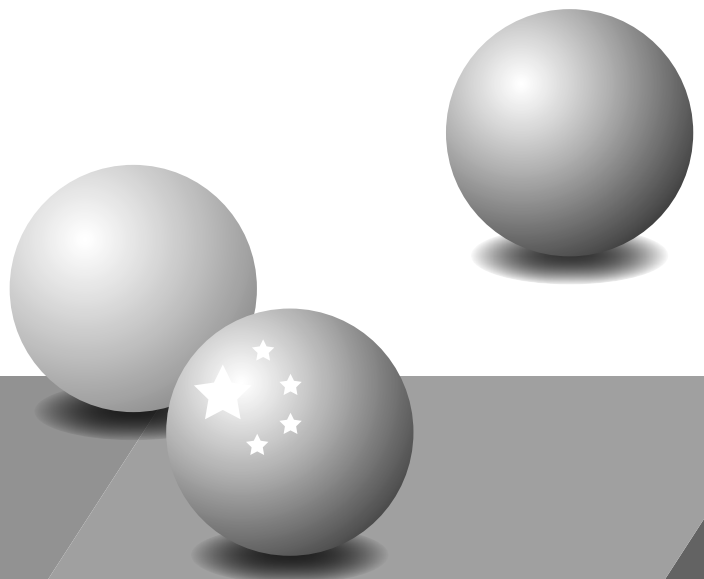
참고문헌

- 刘西忠(2017), “江苏沿江协同发展与扬子江城市群建设研究” 江苏省社科院。
 京津冀人才工作领导小组(2017), “京津冀人才一体化发展规划(2017-2030年)”。
 山东省海洋与渔业厅·发展改革委(2017), “山东省海洋牧场建设规划(2017-2020年)”。
 辽宁省人民政府(2017), “辽宁省沈大国家自主创新示范区 ‘三年行动计划’ (2017—2019年) 实施方案”

7. 도시 접관과 중공 도시전략의 전환

박인성

한성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일제 패망 이후 대륙에서 전개된 국민당과의 제2차 국공내전에서 군사상의 승리를 취득한 후에, 중공이 당면한 과제는 대륙에서 국민당 구정권을 완전히 분쇄하고 구세력의 영향력을 말살하고 새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그 행동은 도시접관(城市接管)에서 시작되었다.

농촌 근거지를 중심으로 유격전 위주 전투전술에 의존해 온 중공의 전략, 전술이 도시중심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인민해방군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서 국민당군에 대한 공세적 전술로 전환을 결정한 1947년 이후, 국민당군과의 전투에서 연전연승하면서 점령, 접수하게 된 도시들에 대한 접관(接管)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였다.

- 이 시기에 중공의 전투 전술도 종래의 유격전에서 운동전 위주의 전면 공세로 대전환을 했고, 이에 따라 전쟁 수행을 위한 보급전략 측면에서도 도시에 대한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야전군의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1921년 창당한 중국공산당은 창당 초기에는 상하이, 우한(武漢), 창사(長沙)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노동자 운동을 통한 활동을 중시했으나, 1927년 "대혁명" 실패 후, 특히 마오쩌둥(毛澤東)이 1,000여 명의 농민봉기군 패잔병을 이끌고 후난성과 장시성(江西省)의 경계에 위치한 징강산(井岡山) 지구에 입산(入山)한 이후, 농촌에 근거지를 건설하고 유격전 위주 전투전술에 의존해 왔으나, 전략중점을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강력하게 대두되면서, 도시를 주(主)로, 농촌을 보(輔)로 하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했다.

- 1948년 10월, 마오쩌둥은 이러한 형세에 적응하기 위해서 “도시와 공업관리 공작을 강화하고, 당의 공작중심을 점진적으로 향촌(鄉村)에서 도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1949년 2월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금후에는 과거 20년간 ‘선향촌 후도시(先鄉村後城市)’ 방식과 반대로, ‘선도시 후향촌(先城市後鄉村)’ 방식으로 개변한다.”고 더욱 명확하게 제시했다.

이러한 개변(改變)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은 “군대간부는 응당 도시접관과 도시관리에 관한 모든 것을 학습하고 습득해야 하고, 필히 도시에서 제국주의와 국민당 반동파에 능숙하게 대처하고, 자산계급에 대한 대응,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지도, 청년 동원과 조직, 신구(新區) 간부의 단결과 훈련, 공업과 상업의 관리, 학교, 신문통신사와 방송국 관리, 외교사무 처리, 각 민주당파, 인민단체의 문제 처리, 도시와 향촌(鄉村)의 관계 조절, 양식(糧食), 석탄, 기타 필수품 문제의 해결, 금융과 재정문제 등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것을 이해하고 숙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마오는 또한, “만일, 우리 간부가 도시관리 방법을 신속하게 습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각한 곤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 1949년 3월, 중공중앙 7기 2중전회에서는 당의 공작중심을 향촌에서 도시로 이전한다는 전략을 정식으로 확정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회의 정치보고에서, "당이 즉각 건설사업에 착수해야 하고, 한걸음 한걸음 도시관리를 학습 습득해야 하고, 도시의 중심임무를 회복 및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우리는 필히 도시의 관리와 건설을 학습 습득하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이 같은 마오쩌둥의 지시가 중공 정권 출범 전후 도시공작업무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 그러나 적지 않은 점관도시들에서 공 상업(工商業) 파괴와 군중들에 의한 집단 물자약탈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

장기간 농촌에서 생활 및 전투해 온 중공의 수많은 간부, 장병들은 도시공작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고, 일종의 농촌 소생산자의 관점으로 도시를 보고 대하고, 도시관리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농촌에서 군중을 발동하여 토지개혁운동을 추진하던 방식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일이 많았다.

또한, 도시에서 지하공작을 담당했던 중공 간부들은 도시의 파괴방침에는 익숙하나 도시건설에 대한 사상에는 무지했다. 그 결과 초기 도시점관(城市接管) 시기에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 1948년 4월 19일, 중공 화북국(華北局)이 이러한 상황을 서면으로 마오에게 보고했고, 마오는 이 보고서 상에, "도시 또는 향진(鄉鎮)에서 공 상업 파괴는 일종의 농업사회주의 사상이고, 그 성격은 반동적이고, 낙후적이고, 도퇴(倒退)적이다, 필히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서면 지시했다. 이후 화북(華北)지구에서 중국 전국에 이르기 까지 중공은 이 정신에 의거해, 간부교육을 진행했고, 과학사회주의 사상과 농업사회주의 사상을 구분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공은 두 가지 시책을 채택했다.

첫째, 도시에 입성(入城)하기 전에 도시의 건설, 보호방침을 명확하게 하고, 이와 함께 비교적 경험이 있고, 정책관념이 강한 간부를 선발하여, 각종 직무에 배치하고, 골간(骨幹), 핵심 역할을 담당케 했다.

둘째, 도시 입성 전에 이러한 간부들에 대한 집중훈련을 진행했다. 사상, 정책 교육을 연속 진행하고, 담당할 도시에 대한 사회정황, 국민당 정권의 정황, 군중들의 동태와 도시생활습관 등을 설명하고, 공 상업 보호발전, 군중 발동을 통한 민주질서 건립 방법 등 중앙의 중요정책을 학습하고 납득하게 했다. 또한, 출신이 서로 다른 각종 간부들의 사상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교육도 강화했다. 예를 들면, 농촌에서 온 간부에 대해서는 농촌관점과 농민관점을 철저히 극복할 것을 요구했고, 도시 지하공작자들에 대해서는 익숙해진 도시파괴 관념을 철저히 극복할 것과 도시건설 사상교육을 강조했다.

● 동시에 도시입성인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4개 조의 기율을 규정했다.

국가, 공공단체와 군중의 사소한 물건도 취하는 것을 불허한다.(不準拿公家和群眾一針一線)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불허한다.(不準換新衣服)
 혼란한 기회를 이용해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불허한다.(不準乘混亂之機買便宜東西)
 연극, 영화관람, 대로(馬路)로 걷는 것을 불허한다.(不準看戲, 看電影, 蹈馬路)

1) 스자좡(石家莊)시 점관 경험

- 1947년 11월 12일, 중공 인민해방군 화북야전군이 허베이성 스자좡(石家莊) 공략에 성공하면서, 중공은 역사상 최초로 중, 대형 도시에 최초로 입성하고, 도시점관(城市接管)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화북(華北)지구의 중심도시 스자좡(石家莊)은 화북평원의 중부, 베이징-우한(京漢)철도, 스자좡-타이위엔(石太)철도, 스자좡-청더(石德) 철도가 통과하는 교통결절이고, 허베이성(冀)과 산시성(晉)의 목구멍(咽喉)이라 불릴 정도로 지리적 요충지이다.

1947년 11월 12일, 인민해방군 화북야전군이 입성할 당시에 이 도시의 명칭은 스먼(石門)시였고, 인구는 20만에도 못 미쳤으나, 도시의 사회정황은 매우 복잡했다. 당시 도시 경제가 붕괴 상태에 직면해 있었다. 대규모 노동자 실업, 물자부족, 물가폭등, 굶주린 시민이 도처에 널려있었다.

- 스자좡 도시점관(城市接管)을 어떻게 진행하는가는, 이후 중공의 집정(執政)능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고, 중공의 도시공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스자좡시 점관 직후, 중공은 각급 당정기구를 새로이 조직하여, 전쟁의 창상(創傷)을 조속히 회복하고, 인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신(新)스자좡 건설의 최우선 중대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했다.

중공중앙 직속기관공작위원회(工委)와 산시-차하얼-허베이(晉察冀)¹⁾ 중앙국은 스자좡 입성 전에 중앙기관과 각 근거지(根據地)에서 대량으로 간부들을 선발하고 스자좡에서 공작담당 준비를 했고,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 푸핑(阜平)현에서 시위원회 주요 구성원을 임명했다. 이러한 간부들이 인민해방군과 함께 초연이 자욱한 스자좡(당시 石門)시에 입성했고, 1947년 11월 17일에는 스자좡 입성 간부수가 모두 800여 명에 달했다.

1) "晉察冀"는 "晉察冀변구(邊區)"라고도 부르며, 항일전쟁시기 중공의 적후방 항일근거지중 하나였다. "晉"은 산시성(山西省), "察"는 차하얼성(察哈爾省), "冀"는 허베이성(河北省)의 약자이다. 이중 차하얼성(察哈爾省)은 1912년 건립된 중국의 구행정구역상 성급행정구이고, 1913년(민국 2년)에 차하얼특별구(察哈爾特別區)로 변경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1952년에 폐지되고, 허베이성, 산시성, 베이징시 옌칭현(延慶縣)에 귀속되었다.



<그림 1> 인민해방군 스자좡시에 입성 장면

자료: 百度圖片

- 중공중앙 공작위원회가 스자좡시 위원회와 시정부를 조직 설립하고, 지도하여 도시점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선시한 일은, 혼란 무질서 상태에서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고, 적시에 공작업무 중의 착오를 바로 잡고, 당원간부의 사상을 정돈하고, 점관업무공작 방향을 바로 잡는 일이었다. 각급 당정기구를 건립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에, 시위원회와 시정부는 적시에 국민당 잔여분자 숙청, 도망간 지주 처리, "3대 공해(三大公害)"²⁾ 처리(治理) 공작을 추진한 후, 시민의 정서를 안정시키고, 경제, 과학교육, 위생 등 공작업무를 추진했다.
- 신생 스자좡(石家莊)정권이 중공중앙 공작위원회(工委)와 산시-차하얼-허베이(晉察冀) 중앙국의 지도 하에 처리한 수많은 당면 난제 처리경험은 이후 중공이 접수한 대·중 도시 점관공작의 모델이 되었고, 스자좡에서 도시점관 경험을 익힌 관리간부 대다수가 이후 연이어 중공이 점령, 접수한 도시의 점관요원으로 파견되었다.
- 1947년 11월 12일, 스자좡에 입성한 중공 파견 간부들은 입성 당일에 중공 스먼시위원회(中共石門市委員會)를 조직 구성하고 공작업무를 시작했다.
11월 14일, 산시-차하얼-허베이변구(晉察冀邊區) 행정위원회 명령에 의거하여 산시-차하얼-허베이변구 스먼시정부(晉察冀邊區石門市政府)를 건립했다. 원(原)국민당 제3군 군부(즉, 正太철로국 업무건물)에 시정부 대외판공처를 설립하고, "산시-차하얼-허베이변구 스먼시정부" 간판을 걸고 포고문을 선포했다.
초대 시장(市長)엔 커칭스(柯慶施)가 취임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시정부 내 조직으로 비서처

2) 당시 스자좡시의 "3대 공해(三大公害)"란 기생집(妓院), 아편흡연관(煙館), 도박장(賭場)을 가리킨다.

(祕書處), 사회국(社會局), 공상국(工商局), 재정국, 교육국, 위생국, 공안국, 그리고 인민법원을 설치했다.

- 1947년 11월 21일, 중공 스먼시위원회(石門市委)가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우선 요구되는 공작은, 군중 발동(發動), 당의 방침과 정책 선전"이라 확정하고,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간부를 정돈하여 신속하게 공작조를 파견하고, 각급 당정조직을 건립했다.
- 정부 건립 초기에, 국민당의 보갑제도(保甲制度)³⁾를 폐지하고, 여전히 이전의 6구(區)제⁴⁾를 연용하면서, 구(區) 밑에 "가(街)"를 설립했다. 각 구(區)는 통일 지휘하는 공작위원회(工作委員會)를 설립하고, 입성 간부들을 조를 나누어 매 구(區)별 6개 공작조(工作組)로 편성하고, 각 가(街)에 파견 배치하여 빈민, 업종별 노동조합 및 공작위원회를 지휘하는 무장(武裝), 즉, 빈민규찰대와 업종별 노동자 규찰대를 조직했다.
- 1947년 11월 16일부터 각 가(街)에서 빈민회(貧民會)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발전방식은 주로 보갑장(保甲長)에 의지해서 가도(街道)의 사회정황을 이해하고, 빈민과 대화하고, 회의를 개최한 후, 이들을 연계시켜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조를 편성하고, 빈민대표를 선거하고, 정식으로 빈민회를 조직 구성했다.
때로는 간부가 빈민내부로 깊이 들어가 빈민을 방문하여 고생담을 묻기도 했다. 영향력 있는 골간(骨幹)을 찾은 후에는, 골간을 통해서 기타 빈민과 연합했다.
빈민회는 정식 등기를 통해서 성립되었고, 또한 업종을 단위로 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소조(小組)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가(街) 대표를 만들어 낸 후에 빈민갱생회(貧民翻身會)를 조직했고, 군중을 조직 한 후에 노동자 빈민이 주도한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 당시에 빈민회가 연속 5-7일 간의 피해와 고난 경험을 고발하게 하는 "소고(訴苦)⁵⁾" 투쟁을 진행하기도 했고, 11월 20일에는 청산투쟁(清算斗爭)으로 고조되었다.
우선 소조회의를 개최하여 "소고(訴苦)" 투쟁을 진행하면서, 목표를 조준해서 투쟁대회를 개

3) "보갑제도(保甲制度)"는 중국봉건왕조시대에 장기간 지속되어온 일종의 사회통제수단으로, 난징(南京) 국민당정부 시기에, 화북지구에서 치안강화운동 기간 중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민국시기 "보갑제(保甲制)"는 촌(村)을 기본으로 10호(戶)를 "갑(甲)", 10 갑(甲)을 "보(保)"로 했고, 도시와 향촌(鄉村)별로 탄력있게 실시했다. 한(漢)대에 5개 가(家)를 "伍", 10개 가(家)를 "什", 100개 가(家)를 "裏"라고 했고, 당(唐)대에는 4개 가(家)를 "鄰", 5개 "鄰"을 "保", 100호(戶)를 "裏"로 했고, 북송(北宋)대 왕안시(王安石) 변법(變法) 시기에 10호(戶)를 "保", 5 보(保)를 "대보(大保)", 10개 대보를 "도보(都保)"로, 원(元)조에는 20개 "호(戶)"를 "甲"으로 했다. 청(淸)에 이르러 10호(戶)를 "패(牌)", 10패(牌)를 "甲", 10 갑(甲)을 "保"로 했다. 즉, 청조의 "패갑제(牌甲制)"가 민국시기에 시행된 "보갑제(保甲制)"와 가장 비슷하다.

4) 당시, 스먼(石門: 石家莊의 옛 명칭)은 6개의 구(區)로 구분되어 있었고, 베이징 - 우한(京漢)철도를 경계로 철도 서쪽에 1개 구(區), 철도 동쪽에 2개 구(區)가 있었다.

5) "소고(訴苦)"란 과거에 당한 고통(苦)을 고소(訴)한다는 뜻으로, 지주로 대표되는 구사회의 반동파(反動派) 지배계급이 노동인민에게 준 고통을 고소한다는 의미이다. "소고(訴苦)운동"은 제 2차 국공내전 당시에 중국인민해방군내 부대 장병에 대한 계급교육과 토지개혁 추진을 위한 군중발동(群衆發動)의 주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운용되었었다.

최했다. 일반적으로 7인 단위로 구성되는 “투쟁주석단”을 조직 구성하고, 2인이 회의를 진행했다.

투쟁회가 일체를 조직했고, 합성과 구호 속에서 사람을 묶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했고, 재산을 수색하여 나누어 가질 수도 있었다. 규찰대는 매일 모여서 같이 숙식하면서 투쟁 과실을 모두 먹어 치웠다.

그 결과, 혼란이 야기되었고, 임의로 사람을 때리고, 체포하는 현상이 연이어 출현했고, 점차 공상업 청산으로 발전되어 갔고, 그 결과 공상업 파괴가 심각했다.

2) 베이징시 점관 경험

- 베이핑(北平: 현 北京)의 해방은 그 이전의 각 대·중도시의 해방방식과 달랐으므로, 그 점관방식도 달랐다.

인민해방군이 톈진(天津)을 접수한 이후, 국민당 베이핑지구 사령관 푸쭈어이(傅作義) 지휘하의 베이핑(北平) 주둔 국민당군 부대 25만인은 절망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중공은 인민해방군 90만 대군을 베이징 성벽 인근에 배치하여 국민당군을 위협하면서, 베이핑 지하당의 공작을 통해, 베이핑내 수많은 개명인사들로부터 "역사문화 고도를 전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촉구 성명을 끌어내는 등의 활동을 통해서, 푸쭈어이가 중공이 제시한 화평조건을 수락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49년 1월 21일, 쌍방 간에 "베이핑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고, 31일에 인민해방군이 전투 없이 베이핑에 입성(入城)했다.

이와 같이 협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접수한 도시에 대해 중공은 군사통제하의 평화적 점관방식을 채택했다.



<그림 2> 인민해방군 베이핑에 입성 장면

자료:百度圖片

- 1948년 12월 21일, 중공 베이핑(北平)시 위원회가 "베이핑 점관업무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통고"에 의하면, "베이핑 진입 후 원래 국민당의 행정, 경제기구 및 그 계통에 대해 즉시 군사통제를 시행하고, 우선 하향(自上而下)식으로, 체계적으로 원(原)상태대로 접수 및 통제하고, 접수를 완료한 후에, 연구를 거쳐 통일적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계획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당시 중공의 총체적 점관사상은, "혁명 수행상 필수적으로 파괴가 요구되는 것 외에는, 유용한 물건들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정치적으로 주도하면서, 경제회복과 생산력 발전에 편리하고, 국가의 장기적 통치와 안전에 유리하다."였다.

- 1949년 3월 20일, 베이핑시 군사관리위원회(軍管會)가 인사처리위원회를 설립했고, 인민해방군과 원(原)국민당 푸쭈어이(傅作義)부대로 구성된 연합판사처(聯合辦事處)의 지휘 하에 이 위원회가 5월까지 구(舊)정부 인원에 대한 처리를 진행했다.

베이핑의 평화적 점관은, 고도(古都)의 대규모 파괴 훼손을 피하고, 베이핑이 빠르게 정상적 정치사회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뿐만 아니라, 도시생산의 회복과 발전에도 유리했다.

- 중공중앙은 도시점관정책 제정과정 중에 정권기구와 경제조직을 명확하게 구별한다는 방침을 채택했다.

관료자본기업 점관 시에는, "필히 엄격하게 주의하여 기업조직 원래의 기구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는 방침을 하달했다.

반면에, 국민당 반동통치 정치기구, 예를 들어서 국민당 군대, 경찰, 법정, 감옥 및 각급 정부 기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괴하고, 재이용 불가능하게 하고, 필히 새로운 정치기구를 다시 건립하여 통치해야 하고, 구(旧)정치기관에서 복무한 인원도 개조과정을 거친 후 분리 구별한 후에만 임용할 수 있다. 개조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통째로 임용하는 건 원칙적 착오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중공 베이핑(北平)시위원회와 군사점관위원회(軍管會)는 1948년 12월 21일, "베이핑 점관공작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관한 통고(關於如何進行接管北平工作的通告)"에서, "우리는 국민당 반동파의 국가기구(정권, 군대, 경찰, 법정, 감옥 등)에 대해, 필히 철저히 분쇄하고, 인민 자신의 정부를 새로이 건립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혁명이다."라고 명확하게 제시했다.

- 또 한편으로는, "통고"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그러나 일체의 사상을 분쇄하는 것은 착오이다. 응당 국가기구와 기업기구를 구별해야 하고, 다른 대책을 채택해야 한다. 적(敵)이 경영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응당 우선 접수하고 원래의 기구와 경영관리방법을 보호 유지해야 하고, 정황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연구 개량해야 한다. 완전 분쇄방침을 채택해선 안되고, 더구나 비교적 진보한

방법을 낙후한 방법으로 대체해서는 더욱 안된다."

- 1949년 1월6일, 당시 중공 베이핑시 시위원회 서기 평전(彭真)이 "당의 기본정책 장악, 입성 후 공작의 양호한 추진"이란 강화(講話)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도시 진입 이후, 우리의 총체적 임무는 구정권을 뒤집어엎는 것과 신정권을 건립하는 것이므로, 반동세력의 잔재를 철저히 때려 부수고, 숙청해야 한다. 그러나 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국가기구와 기업기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기구 즉 정권기관, 군사기관, 경찰, 법원 등, 이런 종류의 적의 기구는 필히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단, 공장, 상점 등 기업기구는接管(接管)과 개량을 해야 한다."

2월 19일, 평전이 다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접관의 대상은 3개 종류가 있다. 첫째는 국가기구이다. 이는 접수한 후에는 철저히 분쇄한다. 예를 들면, 군대, 시정부(市府), 법원 등은 과거에 모두 인민을 압제했다. 만일 이들을 분쇄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간 후에도 군중으로부터 단절될 것이다. 둘째, 공장은接管대상이다.接管 시에 공장 대부분을 원래의 상태로 유지하고, 분쇄를 금하고, 다시 연구하면서 개량해야 한다. 셋째, 학교도接管대상이다. 학교에서도 반동분자만 제거하고, 대부분 동요하지 않게 해야 한다."

- 3월 25일에는, 베이핑시 사회국이接管공작 총결(總結)에서 구기구(旧機構)에 대한 인식을 강조했다.

"일부 기술성 문제에 대해....., 우리는 도시관리를 배우고 익혀야 하고, 그 본질상 낙후하고 반인민적 성분만 제거해야 하고, 반면에 비교적 양호한 일면은 흡수하는 것이, 공작 수립상 여전히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구기구는 필히 분쇄해야 한다. 그것은 반인민, 반혁명의 기초상에 건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 일부분은 아직 비판적으로 보류 및 계속 발휘할 가치가 있다."

- 1949년 4월 12일, 중공 베이핑 시위원회가 "베이핑시 공영기업기구 및 직원 봉급문제에 관한 지시"에서 다음과 같이 제출했다.

"구(旧) 반동국가기구에 대해서는,接管후에 원칙상 필히 분쇄하고, 새로 분리해서 참신한 군중과 밀접하게 연결된 인민민주적 정권기구를 건립해야 한다. 또한, 관료주의와 문서주의(文牘主義)적 작풍(作風)을 진지하게 방지하고 극복해야 한다. 모든 기업은 원칙상 때려 부수는 안되고,接管후 필요한 개량을 해야 한다."

- 그후, 5월 1일 베이핑시정부接管공작총결중에서, 정권계통의接管(接管)에는 양종 방식이 있다고 정식 확정했다.

"첫째, 권력기관으로, 시정부 수뇌부(首腦部), 경비사령부, 경찰, 법원은 즉각 인원을 파견하

여 접관한다.

둘째, 범 기업 부문과 기술부문에는 우선 대표를 파견해 정황을 이해하고, 업무를 숙지한 후에, 선후로 인원을 파견하여 접관한다.

접관과정 중, 군사관리위원회(軍管會)의 접관은 주(主)된 것과 부차적인 것과 선후를 구분한다. 즉, “권력기관—행정수뇌, 공안국계통, 사법부문, 외교부문 내지 세수부문은 필히 즉시 접관해야 하고, 기타 업무 및 기술 성격이 강한 각 부문에는 응당 대표제를 시행하고, 심지어 비교적 긴 시간동안 필요한 각종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

- 접관인원이 베이핑에 진입한 이후에, 성격이 다른 구정권(舊政權), 구인원(舊人員), 구판법(舊辦法), 구제도에 구별하면서 대응했고, 혁명진행과정 중 불가피한 파괴도 최소범위로 통제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존하고, 이용가능한 것은 잠시라도 최대한 이용했다.

우선, 구정권기관을 접관(接管)했다. 예를 들면, 원(原)시정부 수뇌부, 경비사령부, 경찰, 법원 등에 대해서는, 즉각 철저히 분쇄했고, 일체의 업무를 정지시켰고, 인민정부로 대체하여 인민의 권력을 행사했다. 2월 3일, 초대 베이핑시 군사관리위원회(軍管會) 주임 겸 시장 예젠잉(葉劍英)과 부시장 쉬빙(徐冰)이 구(舊)시정부의 인원을 소집한 후 다음과 같은 요지의 정책방침을 선포했다. “각 국(局)과 처(處)는 모두 군대표 명의로 접관(接管)을 실행하고, 원 기관인원을 이용하여 공작한다.”이어서 사회국의 기업부문, 공장, 위생국 소속 각 부속단위와 베이핑 민식배분위원회(北平民食調配委員會) 등을 접관했다.

두 번째로, 베이핑시 경찰국을 접관했다. 그 준비를 위해서, 1948년 12월 17일, 허베이성(河北省) 바오딩시(保定市)에서 베이핑시 공안국을 설립하고, 1949년 1월 31일, 시공안국 전체 인원이 군대와 함께 입성했다. 2월 2일에 베이핑시 경찰국을 접관하고, 새로운 공안국장을 임명했다. 당시에 접관인원의 역량이 부족했으므로, 군(軍)대표제를 채택하고, 공안군사대표판사처(公安軍事代表辦事處)를 설립하고, 국장을 대표하여 지도 감독업무를 하고, 구기구(舊機構)와 구인원(舊人員)을 잠시 이용하여 국(局)내 업무와 사회질서를 유지했다. 2월 17일 베이핑시 경찰국 소속 각 단위(單位)와 각 분국(分局)을 이미 정식 접관했다. 즉, 군(軍)대표제를 중지하고, 시(市)공안국의 새로운 조직기구와 주요 간부명단을 발표했다.

세번째로, 구(舊)사법기관 접관공작은 2월 6일부터 시작했다. 총체적 접수절차는, 우선 원(原) 베이핑 지방법원 및 검찰처, 허베이(河北)고등법원 및 그 검찰처, 구치소(看守所)를 접관했고, 그 다음에 최고민형분청(最高民刑分庭)과 검찰분서를 접관했고, 마지막으로, 제1, 제2 감옥을 접관했다. 시(市) 군관(軍管) 대표가 상술한 9개 단위 인원을 소집하고 설명한 후, 당일부터 직권을 중지하고, 베이핑시 인민법원부터 접수했다. 사법기관의 접관업무는 3월 말에 대체로 완성되었다. 비교적 많은 사회관리직능과 생산성 단위, 예를 들어 우정(郵政), 전신, 교통 등 단위에 대해서는, 혼란을 피하고, 접수단계에서 원(原)보유인원의 관리경험과 업무능력을 최대 한도 이용하여, 그들이 업무관리공작에 계속 종사하게 하고, 군사대표는 정치

적 지도와 감독만 책임졌다. 군사대표가 업무를 숙지한 후에 이러한 기구에 대해서 다시 개조와 정돈을 진행했다.

● 당시 베이핑 점관과정 중 대표제를 실행한 객관적인 원인이 있었다.

평화적 점관은 계통적 점관이므로, 구기구의 원상태를 건드리거나 동요시키지 않기 위해서, 새로 건립한 인민정권내에 점관간부가 부족해서, 시정부 각단위의 업무 성격과 내용을 숙지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해서, 점관기간중 시정부 각 국(局), 처(處)의 업무가 중단되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 대표제의 운용은 점관공작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 당시 점관역량이 미약했고, 인원이 부족해서, 오직 이러한 방법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고, 조사연구 진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기에, 비로소 구인원에 대한 처리를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할 수 있었다.

베이핑의 점관과정 중, “연합판사처(聯合辦事處)”를 충분히 이용해서, 신·구 교체과정중 무정부상태 시간과 공간을 단축했고, 과거에 전혀 몰랐던 점관대상을 이해했고, 점관공작 진행도 상당히 편리해졌다.

기업과 기술부문에 대해 채택한 선(先) 군사대표 파견 방법은 업무와 생산을 중단시키지 않게 보장해 주었고, 사회질서와 민생에 큰 문란이 발생하는 걸 방지해 주었다.

● 베이핑시(北平市) 군사관리위원회(軍管會)가 국민당정권기구 및 기업, 사업단위를 점관하는 과정중에, 과거 국민당 정권에 복무한 각 종류의 구인원도 대량 점관했다. 이러한 구인원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할 것인가? 가 점관업무의 매우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만일 처리를 잘못하면, 인민정부에 대한 대립면과 사회불안 요소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중공은 구인원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처리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 1949년 2월 3일, 신임 베이핑시 시장 예젠잉(葉劍英)과 부시장 쉬빙(徐冰)과 기타 신임 간부들이 국민당 베이핑시 정부 정문(현 국무원 위치)에 와서 베이핑시정부를 점관했다. 점관과정중에, 국민당 베이핑시정부의 각급 공작인원을 대면한 예젠잉이 구인원에 대해 포용하고 가겠다는 방침을 선포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두들 실업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모든 인원을 포용하겠다. 인민정부는 해야 할 일이 매우 많고, 많은 간부가 필요하다. 당신들은 공작경험이 있고, 그 같은 경험은 매우 귀한 것이다. 단, 입장을 바꿔야 한다. 반동파를 위한 복무에서 인민을 위한 복무로 전향(轉向)해야 한다."

● 점관초기에 “포용하고 가는(包下來)” 방침의 확정, 각계 민심의 지지를 받았고, 사회안정을

확보했고, 베이핑정권의 순조로운 인수인계를 위한 연착륙을 도왔다.

군사관리위원회(軍管會)는 초보적으로 입안한 구인원에 대한 포용 방침에 의거해, 베이핑시 각 단위의 근무인원을 전면 접수했다.

● 3월 1일, 예젠잉이 마오쩌둥에게 보낸 보고에 베이핑시의 구인원에 대한 접관공작을 상세하게 소개했다.

그중 물자접관위원회(物資接管委員會)가 2월 3일~15일 기간중 이미 604개 단위(주요 단위 및 수뇌기관 전체 포함)를 접관했고, 접관된 인원이 모두 약 8만 3,100인이었다. 문화기관위원회(文化機關委員會)가 2월 19일까지 31개 단위를 접관했고, 인원은 약 1만 3,756명이었다. 접수한 구시정부(舊市府) 인원(법원 및 각 區는 불포함)은 모두 5,121인이었다.

이 시기에 이미 접수한 각 단위의 대부분의 인원들은 여전히 원래의 직위에서 근무하게 하고, 필요한 생활유지비를 지급하고, 그들이 공산당에 대한 공포심리를 기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했다.



<그림 3> 베이핑시 교통부 철도처 접관 장면

자료:百度圖片

● 9월에 중공중앙이 한 지시에서 포용정책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해석을 했다.

이미 해방된 도시 즉, 베이징, 상하이, 우한(武漢), 창사(長沙), 란저우(蘭州) 등 도시와 곧 해방될 도시 즉, 광저우(廣州), 충칭(重慶), 디화(迪化: 현 우르무치), 타이완 등에서 접수할 국민당 공작인원에 대해서, 악행이 복잡다양하고, 엄중한 부정부패 및 고관대작에 의지해 먹고

살아온 분자, 또 군중의 여론이 안 좋은 자는 파면하고 의법처리하는 외에, 일반적으로 모두 유용(留用)한다고 발표했다.

단, 이들 유용인원(留用人員)에게 인민과 정부의 곤란을 설명하고 적당히 대우를 낮추었다. 즉, 세 사람 분의 밥을 다섯 사람이 같이 먹고, 주택은 더 좁게 거주하게 했다.

- 이러한 정책 실시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 당시 중공중앙 화북국(華北局) 서기였던 보이보(薄一波)는 다음과 같이 총결했다.

“문제를 볼 때 좁은 안목으로 볼 수 없고, 정치영향을 보아야 한다. 물론 정치도 모든 걸 대체할 수 없고, 경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정치적 문제에 주의하지 않고, 오직 눈앞만 보고 장래를 보지 않으면, 한 측면만 보게 되고, 전면을 보지 못하게 된다. 오직 경제 측면에서 감당해 낼 수 있는지 여부만 보고, 정치적 후과(後果)가 어떤 것인지 보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정책은 당과 인민사업의 발전에 유리할 수 없고, 결국 실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문제를 주도면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적 발전도 보증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더욱 양호하게 경제를 고려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은 늘 밥을 먹어야 하므로, 포용하고, 교육을 진행하면서, 다시 생산에 전입시키는 게 보다 좋은 방법이다. 질서있게 밥을 주는 것이 사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보다 좋은 것이다. 사회가 안정되어야, 경제회복과 발전도 보다 쉬워진다.”

- 구정권 점관 이후, 대부분 구(舊)직원들이 여전히 원래의 직위에서 근무했고, 또한 필요한 생활 유지비를 지급 받으면서, 이들도 공산당에 대한 공포심리를 기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단, 이러한 구정부인원들은 여전히 자신의 앞날을 불안해 하고 있었고, 인민정부의 동지와 군중도 구정부인원에 대해 진일보한 조치가 있어야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따라서, 필히, 구정부인원의 정치조건, 업무능력 및 인민정부의 공작수요에 근거하여, 이들 구정부인원에 대해 적당한 처리를 해야했다.

- 1949년 1월 20일, 예젠잉(葉劍英)이 허베이성 량향(良鄉)에서 개최된 베이핑 간부회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우리가 장래에 이러한 구인원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 문제가 없으면 이용해야 한다. 중앙의 지시에 의하면, 선양(沈陽)의 경험에 근거하면, 접수과정 중에 일부 구인원을 사용해 본바, 이들이 우리를 돕고자 매우 노력했고, 업무능력이 뛰어났다. 우리의 공농(工農)간부도 좋으나, 도시정황에 대해 잘 모르고 공작능력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이용해야 한다고 확정했고, 구지식분자, 구직원을 대규모로 훈련 개조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 당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이 문제에서, 우리는 “좌(左)”의 관문주의(關門主義)에 반대하고, 지식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대담하게 사용해야 한다. 다른 방면에서는 “우(右)” 또한 방지해야

한다. 오직 단결만 하고, 교육하지 않고, 개조하지 않으면 입장을 상실하고 투항주의가 된다. 개조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면 착오가 생긴다는 걸 필히 알아야 한다.”

- 2월 19일, 당시 베이핑시 서기 평전(彭真)이 시(市)치안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국가 기관을 접수한 후에 필히 철저히 분쇄해야 하나, 이러한 기구내의 모든 사람을 이용할 수 없다는 관점은 착오이다. 이러한 기구의 인원을 몇 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특무(特務), 즉 스파이이다. 이런 종류의 자는 일률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둘째, 반동적 정치대표, 예를 들면, 국민당의 책임자, 보장(保長) 등은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를 위한 일에 사용할 수는 없고, 또한 주의해야 한다.

셋째, 정부안의 기술인원은 고용성격으로만 이용하고 주도자가 되게 해서는 안된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대부분 이용할 수 있다. 악행을 범한 적이 있는 자는 필히 개조 후에 이용할 수 있다.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는 응당 인내심을 갖고 교육시키고, 장래에 기관 간부가 되게 할 수도 있다.

넷째, 기관중의 잡역부(工役)인데, 이들은 특무(特務)가 아니라면 이용할 수 있다.

- 구인원의 역사적 정황과 사상동태가 극히 복잡하여, 필히 전면적으로 심사하고, 구분하여 대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했다. 만일 한 건을 부당하게 처리한다면, 전 기관 인원의 사상동요와 정서불안이 야기될 수 있었다. 반대로, 한 분자(分子)를 정확하게 처리하면 전체인원의 정서를 감동시킬 수도 있다. 베이핑도서관에서 횡령분자인 총무주임 1인을 면직시키자 직원 모두가 “공산당의 일처리가 정말로 철면무사(鐵面無私)하다.”고 말하며 감동했다. 인사처리위원회가 각 개인을 구체적으로 심사처리할 때 실사구시(實事求是), 치병구인(治病救人) 및 구분대응, 책임지는 정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본 기관이 유용(留用) 및 해고자 외에 처리 대기 인원에 대해, 보편적으로 본인의 의사, 즉 근무, 학습 또는 귀향(回籍) 의사 등을 청취하고, 교육을 더하고, 공작능력이 있는 귀향 희망자들은 학습으로 전향토록 유도하고, 개조의 길 선택을 결심하여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길을 가도록 한다.”

-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베이핑 시위원회가 구인원에 대해 분류,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정했다. 공작능력이 있고, 사상이 반동적이지 않은 자는 유용(留用)한다. 사상이 낙후하고 심지어 반동이나, 정치상 아직 반혁명활동이 없고, 공작능력이 있는 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이므로, 본 기관내에서 단기훈련을 실시한 후 다시 분별해서 임용할 수 있다.

사상이 낙후하고, 특수능력도 없고, 본기관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는 선별하여 화북대학(華北大學)에 보내 장기간 학습받게 한다.

국민당 특무분자 및 당무분자, 그리고 그 행정상 대표(보갑대 대장, 인사과장, 인사간사, 처

장, 국장)은 원칙상 일률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특무분자 중 중대한 자는 공안국에 보내 조사, 처리한다. 일반특무 또는 당단(黨團) 공작인원은 등기를 취소하고 처리지시를 기다린다. 실제 근거가 있는 횡령분자는 파면하고, 중대 안건은 법원으로 보내 의법처리한다.

노령으로 공작능력이 없는 자, 사상이 완고하고 생활이 타락한 자, 기타 퇴직을 요구하는 자는 귀가시킨다.

소수고급직원으로, 상당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나 적합한 업무위치에 있지 않은 자, 또는 매우 오랜 기간 본기관에 근무했고, 나이는 많으나 사퇴시키면 영향이 좋지 않은 자는 연구실 설립 또는 기타 방법으로 임시 배치한다.

- 1949년 6월, 베이핑시 군관회(軍管會)가 작성 발표한 “각 대단위가 처리한 원(原)국민당기관 인원에 대한 공작총결”에서 구정부 인원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총결했다.

베이핑시 군사관리위원회가 시정부, 문화기관점관위원회(文管會), 물자점관위원회(物管會), 공안국 등 4대 단위를 포함해 구정부인원 3만 9,135명(군사계통으로 보내 처리한 1,852인 포함)을 처리했고, 유용자(留用者)가 대다수를 점했다. 각 단위가 처리한 총 인원수 중 유용(留用)인원이 3만 570명으로 78.9%를 점했고, 여기에 남하 공작단에 참여했거나 화북대학(華北大學)에 입학 알선해 준 사람까지 더하면 80% 이상을 점한다.

참고문헌

中共中央黨史研究室(2011),『中國共產黨歷史第一卷(1921-1949)下冊』,中共黨史出版社.
 庞松著(2010),『中华人民共和国史(1949-1956)』,人民出版社.
 张浩(2010),“新中国成立前后中共接管城市旧政策的政策与实践-以北京市为个案”,『经济与社会发展』,2010年第2期.
 中國文史出版社(2009),『城市接管親歷記』.
 山西省史志研究院編(2001),『山西通史 第9卷』,146-147页,山西人民出版社.
 毛澤東著(1991),『毛澤東選集第一卷』,人民出版社.
 薄一波(1991),『若干重大决策与事件的回顾:上卷』,中共中央党校出版社.
 何沁主編(1990),『中國革命史』,武漢大學出版社.

「충청중국포럼 소식」

제21·22회 충청중국포럼

제21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대중국 교류·협력 경험 공유 및 활성화 방안

- 제21회 충청중국포럼은 지난 5월 30일(화) 충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충남도·시군 국제업무 관련 팀장(주무관)의 “대중국 교류·협력 경험 공유 및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개최됐다.



<그림 1> 제21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

이번 포럼에는 충남도 미래정책과 윤병환 과장, 이성일 환황해팀장, 김성환 주무관과 박성인 주무관, 기업통상교류과 이문기 주무관과 김은숙 주무관, 농업정책과 길병성 팀장,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 신현우 팀장,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최선묵 대외협력팀장, 태안군 기획감사실 최기봉 팀장, 역사문화연구원 이상균 박사 등이 참석했다.

- 이문기 주무관은 한·중 인문교류 테마도시: ‘구이저우의 날’과 ‘충남의 날’의 추진배경, 추진경위, 행사추진과 성과·향후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2014년 9월 충남도는 구이저우성과 우호교류협정의향서를 체결했고, 2015년 12월 충남도와 구이저우성은 ‘2016년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확정됐다. 2016년 4월 구이저우성 천민열

당서기를 비롯한 대표단은 충남에서 열린 ‘구이저우의 날’ 행사에 방문했으며 2016년 11월 충남도 안희정 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은 구이저우에서 열린 ‘충남의 날’ 행사에 방문했다. 양 도·성 간 인문교류를 통해서 지역개발 등 발전 가능성이 큰 중국 구이저우성과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교류기반 구축으로 충남의 국제적 위상을 고양하고, 당시 한중관계의 긴장국면으로 인해 양국의 교류가 최소화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지역의 교류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향후 양 지역은 양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해 경제·관광·농업·의료·산림·문화제를 비롯한 인문교류사업의 실질적 교류를 추진할 계획이다.

- 길병성 팀장은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의 추진배경, 추진현황, 성과 등의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한·중·일 동아시아 지방정부는 공통적으로 농촌지역 고령화, 도·농간 격차심화 등 심각한 농촌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5년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동아시아 지방정부 3농포럼의 지속 개최(한·일·중 순회)를 통해 지리적 인접과 농업시스템 유사점을 매개로 상호간 협력을 확대시킬 계획이다.

- 신현우 팀장은 서산시와 중국 안휘성 허페이시(合肥) 간의 경제협력 실무협의의 주요내용과 성과에 대해 정리·소개했다. 2016년 11월 중국 허페이시에서 서산시와 허페이시는 경제협력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투자개방, 농업분야와 투자기업 등 내용을 협의했다.

또한, 서산시는 허페이시 국제우호도시 간담회에서 서산시의 경제 여건과 우호도시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 등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서산시는 허페이시와 우호교류 및 경제협력 교두보를 마련하고, 서산시 경제협력에 대한 투자기업을 모집하고, 서산시의 공산품과 농특산물 가공품 수출 및 전시판매장 설치를 제안했다. 향후 양측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체제 등을 고도화하고,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참가 방안을 논의했다.

- 최선묵 팀장은 당진시의 대중국 교류 현황을 소개했다. 2016년 10월에 중국 르자오시(日照市)에서 당진시청을 비롯한 후원 단체 주최로 열린 제12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 약 30명의 학생과 500여 명의 관람자가 참석했다. 수상자 중 6명은 당진 여행의 기회를 얻었고 여행 동안 당진 관광지 및 기업 방문,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입상자도 현지 한국 기업에 추천됐다. 2009년부터 이미 40명이 한국 당진시에 방문했다. 한국어 말하기 대회의 개최를 통해서 한국문화 및 당진시 소개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 문화체험 공감을 얻고, 당진시-르자오시 간의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고, 르자오 진출 한국기업의 우호를 증진했다.

- 최기봉 팀장은 태안군의 대중국 관련 국제교류 추진 현황과 대중국 관광객 유치 노력에 대해 정리·발표했다. 태안군은 2016년 사양현(泗陽縣) 및 봉래시(蓬萊市)과 우호협력을 체결했고 교

류협력 분야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단기 종합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기자단을 초청했고, 공공 외교단 태안시티 투어를 실시했고, 태안군 통·번역 길라잡이를 운영했다.

- 충남도·시군 국제업무 관련 팀장(주무관)의 발표가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연구원 미래 전략연구단 송두범 단장은 “당진시가 주최하는 한국어 말하기 대회는 적은 예산을 투여해 높은 효과를 보인 사례로 성공적 지방 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군 지자체와 민간단체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 박경철 팀장, 충남도 기업통상교류 과 김은숙 주무관 등도 지방정부 측면의 대중국 교류·협력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토론을 진행했다.

제22회 충청중국포럼 개최 2017년 충남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

- 지난 6월 29일(목), 충남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충남경제진흥원 조광옥 팀장의 “2017년 충남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 한중 FTA 현황 소개”란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제22회 충청중국포럼이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충남도 충남도 미래정책과 이성일 한황해팀장, 김성환 주무관과 박성인 주무관, 기업통상교류과 이문기 주무관,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곽찬근 주무관,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 등이 참석했다.

조광옥 팀장은 충남FTA 활용지원센터 개요, 지원센터의 2017년 사업 추진계획, 한중 FTA 무역현황에 대해 정리·분석했다.

- 충남 FTA 활용지원센터는 중앙, 지방정부, 유관기관 간 협력과 사업운용을 위한 Sub-Center 개설된 지원센터이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충남 지역 내 FTA 지원 기관 간 정책통합·협력체계 구축과 현장의견을 반영하고, 활용지원사업의 발굴 및 집행을 실시하고, 전문상담원에 의한 FTA 활용정보 제공과 기업 상담 서비스를 수행한다. 2017년 사업 추진계획은 주로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확인, 교육, 협업사업, 설명회, 지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수출통상 지원 등 업무가 포함한다.

- 2015년 한중 FTA 협정을 체결한 후에 중국시장에서 한국상품의 경쟁력을 증가시키는 기회를 부여했다. 상품·서비스·투자·협력 등 총 22개 챕터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 한중 FTA 협정의 주요 내용은 품목수 기준으로 중국은 91%(7,428개), 한국은 92%(11,272개)에 대한 관세를 최장 20년 이내 철폐하는 것이다.

특히, 농수산물 분야에서의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역대 FTA 중 최저수준이다. 쌀은 완전 배제하고 고추·양파·마늘 등 채소류와 소고기·돼지고기 등 육류는 총 610여 개 품목이 양허에서 제외됐다.

- 지난해 1-10월에 한중 무역총액은 1,716.7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5%가 줄었고, 대중국 수출은 1,007.5억 달러, 수입 709.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2%와 5.6% 감소했다.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및 자급률 상승으로 한중 무역은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를 보면, 한국, 일본, 미국, 대만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10.9%, 9.6%, 9%와 9%이었고,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0.4%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의 대한국 FTA 수혜품목 및 여타세울 품목의 수입 현황을 보면, 한중 FTA 수혜품목이 전년 동기대비 1.7%만 감소해 한중 FTA의 수입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한국의 대중국 FTA 수혜품목 수출물량이 증가한 품목수는 2015년 297개에서 2016년 1,198개로 1년간 대폭 증가했다. 즉, 한중 FTA 관세 인하가 대중국 수출시 수출단가 인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강연이 끝나고 진행된 토론에서, 충남연구원 미래전략연구팀 홍원표 팀장은 사드 배치 문제로 화장품을 비롯한 대중국 수출 기업이 체감하는 피해가 늘었는데 기업이 대중국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조팀장은 수출기업이 중국 현지의 통관 절차, 제품에 대한 검역 내용 등 정보를 잘 파악하고, 한중 FTA 협정의 관세율을 활용하고, 표준 통관 문서를 작성한다면 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충남도 미래정책과 이성일 팀장과 박성인 주무관, 보령시 기획감사실 최철구 주무관 등도 원산지 발급과 관리, 비관세 장벽, FTA 관련 인재 육성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 8월 30일(수) 오전 10시에 충남연구원 4층 대회의실에서 홍인표 고려대 교수를 초청해 “중국의 미래권력 전망”이란 주제로 개최된 제23회 충청중국포럼 소식은 제 15호에 실을 예정이다.



<그림 2> 조광옥 팀장 강연 모습(좌)과 제22회 충청중국포럼 단체 사진(우)

※ 문의 : 충남연구원 중국연구팀(041-840-1175, neong@cni.re.kr)

■ 중국동향과 진단 발간목록(2015.6~2017.8)

호수	발간월	주 제
제1호	2015년 6월	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一帶一路)건설과 중국의 국토발전촉
제2호	2015년 7월	신상태 시대 중국경제와 충남의 대응과제
제3호	2015년 8·9월	징진지 지구 일체화 정책 추진 동향과 충남의 시사점(합본호)
제4호	2015년 10월	중국 삼농문제의 연원과 관련정책 동향
제5호	2015년 11·12월	산둥성 남색경제 발전전략(합본호)
제6호	2016년 1·2월	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제7호	2016년 3·4월	한중 FTA 발효가 충남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제8호	2016년 5·6월	방한 '요우커' 충남 유치전략
제9호	2016년 7·8월	중국 구이저우성의 현황과 충남의 대응전략
제10호	2016년 9·10월	환황해권시대 충남의 대(對)중국 전략
제11호	2016년 11·12월	중국내 한중산업단지의 설치 동향
제12호	2017년 3·4월	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준비 현황과 과제
제13호	2017년 5·6월	중국 대기오염의 현황과 시사점
제14호	2017년 7·8월	중국 빅데이터 산업의 시장 동향과 시사점

※ 발간된 내용은 충남연구원 홈페이지(www.cni.re.kr)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